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 주 회

이 선 화[†]

동신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년기 남녀 675명의 자료를 활용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년기 남성의 경우에는 초이성형과 인지적 친밀감 관계에서 타인탐색이, 비난형과 성적 친밀감에서 타인이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비난형과 인지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탐색이, 산만형과 성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이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성찰, 부부친밀감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개입전략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주요어 : 중년기, 의사소통유형, 부부친밀감, 자기성찰

[†] 교신저자 : 이선화,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Tel : 062-972-2042, E-mail : leesh531@nate.com

서론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지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Murstein, 1980). 친밀감이란 인간 내면의 깊은 연합 또는 결합과 연관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까지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게다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전제로 신뢰, 책임감, 대화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감정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가족관계 내에서 쉽게 경험하게 된다(정현숙·유계숙, 2001). 이로 인해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했던 과거와 달리 가족구성원 간 친밀감을 추구하는 등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권정혜·채규만, 2000; 박민지, 2006).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혼은 11만 5500건으로 전년보다 0.2%인 200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혼인한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은 1만 300건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로 증가했다. 이혼 사유의 절반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기인한다는 2014년도 통계청의 보고는 황혼의 전 단계인 중년시기의 결혼 유지와 가족의 안정성에 부부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부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임상 분야에서 친밀감이 주목받고 있다(Noller & Feeney, 2002). 이렇듯 중

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로(이경희, 1998) 부부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친밀감 결여시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의 유지와 적응에 있어 중요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부친밀감 부재는 가족의 위기와 해체에 영향을 주며, 가족 해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부부문제 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부친밀감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편, 부부친밀감에 있어서 중년기 기혼 남녀가 인식하는 바는 다르다. 이정수(2005)의 연구에서 기혼 남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보살핌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반면, 기혼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상호존중과 부부간 타협적이고 주체적이며 기능적인 의사소통 측면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 남성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를 배우자가 주기를 원하고, 기혼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기를 원하고 이를 부부친밀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부문제는 친밀감에 대해 기혼남녀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부부가 남녀의 친밀감에 대한 정의가 다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친밀감에 대한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배우자에게 맞춰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여기나 남성들은 잘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혼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정서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는다(이정수, 2005).

부부친밀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김미라, 2001; 이미영, 2009; 김명희, 2006; 박민지, 2006; 양진선, 2004; 이정수, 2005; 장선웅,

2008; 박봉순·김영희, 2010)를 살펴보면, 자기 개방과 공감반응, 원가족 건강성, 생활만족도, 원가족 분화수준, 가족규칙, 부부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종교성향, 심리적 복지,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 등을 부부친밀감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이경희, 1995),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험적 연구 자료와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김미라, 2001)이다.

한편, 부부관계는 상호관계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정적 차원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상호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경신·박은주, 1996; 김미라, 2001; 박민지, 2006). 부부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부부친밀감을 증진시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는 부부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거듭 보고되는 문제이자 부부치료의 주된 쟁점이며, 결혼생활의 만족을 예언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그러므로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 시키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대한 부부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미라, 2001; 양진선, 2004). 한편 의사소통은 성에 따라 차이

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는데 Morton과 Douglas(1981)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성과 관련된 행동, 즉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간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개 단일 차원적 접근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권정혜, 채규만, 2000; 김희진, 2005;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단일 차원적 접근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여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연구하는 정도인데(정순례, 2014) 이는 다른 차원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 자기성찰, 자기관, 자아존중감, 자기의식과 같은 내면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기숙, 2003; 류형택, 2006; 박주분, 2008; 박혜경, 2010; 장동규, 2009). 특히, 황주연(2011)은 자기성찰 척도를 개발하여 내면적인 요인에서 자기관과 자기성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내면적인 요인들과 안녕감 간의 경로 모형에 대한 연구를 한 황주연(2011)은 자기성찰 척도를 개발하며 자기관, 자기성찰 및 안녕감 간의 경로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중년기 기혼 남녀들은 이 시기에 자기를 회복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전환기로의 도약을 시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로 부부친밀감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때 부부친밀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성찰을 들 수 있다. 자기성찰은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로 표현한다. 자기성찰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감도 높고 개인의 내면을 보는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로써 자기성찰이란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또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더욱 통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정영혜, 2013).

본질적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의 시기를 중년기로 본(김명자, 1985) 바와 같이,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가능성은 중년기의 부부친밀감의 상관을 밝혀 중년기에 경험하는 기혼 남녀의 이혼위기와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부가 상호 관계적 맥락 안에서 영향을 받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공유적 관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지, 정서, 그리고 성이라는 다면적인 측면에서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이경희, 1995, 1998; 김미라, 2001; 양진선, 2004)는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기성찰의 두 주요 변인의 차원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다양한 영역의 부부친밀감과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친밀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검증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남성은 의사소

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여성은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40-59세의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회사, 관공서,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상담소 등에서 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연구대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미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6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51.6%, 남성 48.4%이고, 연령은 40대 64.3%, 50대 35.7%이다.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4.3%, 전문대졸 18.7%, 대학원 이상 15.7%, 중졸이하가 1.8%로 나타났다. 결혼유형은 연애결혼 68.1%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11-20년 48.3%, 21-30년 36.7%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동거부분은 94.2%이며, 자녀수는 2명이 63.2%로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의사소통유형

Satir의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엄정희(2009)가 사용한 검

사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유형 6문항, 비난형 6문항, 초이성형 5문항, 산만형 6문항, 일치형 5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회유형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자신의 가치나 감정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김영애, 2004). 둘째,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틀리거나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으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나 타인을 비난하려 한다(Satir, 2000). 셋째, 초이성형은 완벽을 추구하며 냉정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결코 감정을 내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서적 욕구는 숨기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넷째, 산만형은 주의가 산만하고 생각과 말, 행동 등 모든 차원에서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다섯째, 일치형의 사람은 말하려는 내용과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 일치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의 각 하위요인의 대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첫째, 회유형은 '배우자의 얼굴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를 배려하고 잘 돌봐주는 편이다' 등이 있다. 둘째, 비난형은 '배우자의 실수나 결점을 잘 찾아내어 비판하는 편이다', '나는 대체로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 등이 있다. 셋째, 초이성형은 '나는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편이다' 등이 있다. 넷째, 산만형은 '나는 곤란하거나 난처할 때는 유머로 그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편이다', '배우자는 나의 말이나 행동을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다섯째, 일치형은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편이다',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있

으며,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회유가 .67, 비난이 .73, 초이성이 .49, 산만이 .52, 일치가 .70, 전체가 .76이었다.

자기성찰

자기성찰을 알아보기 위해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로 4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수는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탐색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대한 분석 및 탐색', 자기이해는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 타인탐색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생각과 기대 등을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타인이해는 '상대방과 자신, 둘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해결방법의 모색'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기성찰의 각 하위요인 측정 대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기탐색으로 '나는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등이며, 자기이해로는 '내가 하는 걱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내가 겪는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발견하곤 한다' 이다. 타인탐색으로는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그가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생각해 본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등이며, 타인이해로는 '상대방에게 서운할 때 상대방이 보인 태도가 무엇을 뜻하

는지 생각해 본다',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자기탐색이 .87, 자기이해가 .84, 타인탐색이 .87, 타인이해가 .85, 전체가 .94이었다.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998)가 제작한 부부친밀감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5문항이다. 인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 성적 친밀감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증진을 위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라고 각 하위요인을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부부친밀감의 각 하위요인의 대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인지적 친밀감으로는 '우리는 각자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등이며, 정서적 친밀감으로는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 준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한다' 등이고, 성적 친밀감으로는 '우리는 성적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인지적 친밀감이 .80, 정서적 친밀감이 .80, 성적 친밀감이 .85, 전체가 .7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의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기 기혼남녀의 의사소통유형, 자기성찰, 부부친밀감의 상관관계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 자기성찰 및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친밀감과 회유형($r=.40, p<.01$), 비난형($r=-.17, p<.01$), 초이성형($r=.26, p<.01$), 일치형($r=.40, p<.01$), 자기탐색($r=.33, p<.01$), 자기이해($r=.38, p<.01$), 타인탐색($r=.46, p<.01$), 타인이해($r=.47, p<.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친밀감과 회유형($r=.46, p<.01$), 비난형($r=-.22, p<.01$), 일치형($r=.28, p<.01$), 자기탐색($r=.30, p<.01$), 자기이해($r=.30, p<.01$), 타인탐색($r=.35, p<.01$), 타인이해($r=.41, p<.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성적 친밀감과 회유형($r=.36, p<.01$), 비난형($r=-.14, p<.05$), 초이성형($r=.19, p<.01$), 산만형($r=.15, p<.01$), 일치형($r=.35, p<.01$), 자기탐색

표 1. 중년기 기혼남녀의 의사소통유형, 자기성찰 및 부부친밀감의 상관관계

		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성	1. 회유형	1	-.12*	.28**	.29**	.13*	.20**	.27**	.29**	.36**	.16**	.21**	.17**
	2. 비난형	-.14*	1	.18**	.42**	.07	.04	-.01	.04	-.15**	-.13*	-.13*	.01
	3. 초이성형	.33**	.18**	1	.18**	.20**	.17**	.20**	.20**	.16**	-.01	-.12*	-.11*
	4. 산만형	.21**	.43**	.19**	1	.23**	.04	.07	.04	.11*	.19**	.17**	.21**
	5. 일치형	.43**	.08	.43**	.35**	1	.34**	.38**	.19**	.26**	.36**	.21**	.25**
	6. 자기탐색	.41**	-.12*	.27**	-.05	.38**	1	.75**	.57**	.44**	.40**	.23**	.26**
	7. 자기이해	.35**	-.09	.30**	-.05	.39**	.73**	1	.54**	.53**	.35**	.17**	.17**
	8. 타인탐색	.39**	-.24**	.31**	-.02	.32**	.62**	.68**	1	.57**	.26**	.23**	.22**
	9. 타인이해	.45**	-.23**	.31**	.02	.39**	.54**	.63**	.75**	1	.38**	.30**	.30**
	10. 인지적 친밀감	.40**	-.17**	.26**	.08	.40**	.33**	.38**	.46**	.47**	1	.69**	.53**
	11. 정서적 친밀감	.46**	-.23**	.09	.05	.28**	.30**	.30**	.35**	.41**	.60**	1	.65**
	12. 성적 친밀감	.36**	-.14*	.19**	.15**	.35**	.32**	.29**	.33**	.34**	.49**	.61**	1
남성	M	3.57	2.83	2.66	2.89	3.38	3.69	3.74	3.81	3.76	3.64	3.60	3.22
	SD	.56	.64	.44	.50	.58	.67	.62	.66	.66	.66	.80	.77
여성	M	3.55	2.75	2.66	2.83	3.51	3.96	3.92	3.99	3.92	3.69	3.37	3.13
	SD	.57	.69	.49	.58	.62	.69	.66	.60	.64	.79	.92	.82

* $p < .05$, ** $p < .01$

($r = .32, p < .01$), 자기이해($r = .29, p < .01$), 타인탐색($r = .33, p < .01$), 타인이해($r = .34, p <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 자기성찰 및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친밀감과 회유형($r = .16, p < .01$), 비난형($r = -.13, p < .05$), 산만형($r = .19, p < .01$), 일치형($r = .36, p < .01$), 자기탐색($r = .40, p < .01$), 자기이해($r = .35, p < .01$), 타인탐색($r = .26, p < .01$), 타인이해($r = .38, p <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친밀감과 회유형($r = .21, p < .01$), 비난형($r = -.13, p < .05$), 초이성형($r = -.12, p < .01$), 산만형($r = .17, p < .01$), 일치형($r = .21, p < .01$), 자기탐색($r = .23, p < .01$), 자기이해($r = .17, p < .01$), 타인탐색($r = .23, p < .01$), 타인이해($r = .30, p <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성적 친밀감과 회유형($r = .17, p < .01$), 초이성형($r = -.11, p < .05$), 산만형($r = .21, p < .01$), 일치형($r = .25, p < .01$), 자기탐색($r = .26, p < .01$), 자기이해($r = .17, p < .01$), 타인탐색($r = .22, p < .01$), 타인이해($r = .30, p <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역할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검증에 앞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원점수를 중심화 처리하였다.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성찰을 동시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이러한 상호작용항의 β 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면 자기성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은 의사소통유형, 부부친밀감, 자기성찰의 각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 부합되게 부부친밀감 관계를 구분하여 의사소통방식을 탐색하기 위함이며, 또한 자기성찰과 부부친밀감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하위

적용 영역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이 있었고, 관계 영역들 간의 상호상관 크기도 -.23 ~ .73범위로 비교적 다양하였기 때문이다.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친밀감의 경우 초이성형과 타인탐색은 준거변인 변량의 총 22%를 설명하였다($F=46.83, p<.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2%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으며($F=33.65, p<.001$),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였다($\beta=-.12, p<.05$). 이러한 결과는 초이성형과 인지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탐색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적 친밀감의 경우 비난형과 타인이해는 준거변인 변량의 총 11%를 설명하였다($F=21.21, p<.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2%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으며($F=16.67, p<.001$),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였다($\beta=-.13, p<.05$). 이러한 결과는 비난형

표 2.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인지적 친밀감	1단계	초이성형	.13*	.22	46.83***
		타인탐색	.42***		
	2단계	초이성형	.14**		
		타인탐색	.41***		
	초이성형×타인탐색	-.12*	.24	.02	33.65***
성적 친밀감	1단계	비난형	-.06	.11	21.81***
		타인이해	.33***		
	2단계	비난형	-.07		
		타인이해	.34***		
	비난형×타인이해	-.13*	.13	.02	16.67***

* $p<.05$, ** $p<.01$, *** $p<.001$

과 성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이해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유의한 조절효과와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성찰을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선을 구하고 부부친밀감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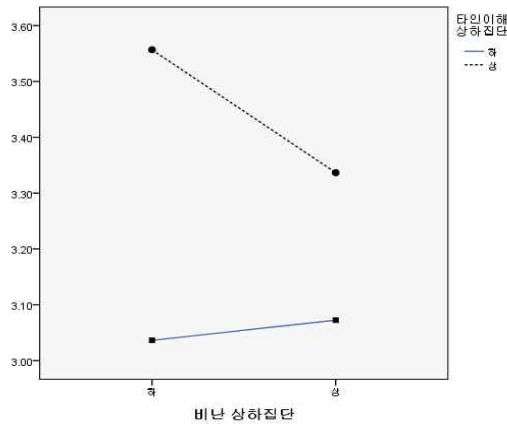


그림 1. 중년기 기혼남성의 비난과 성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이해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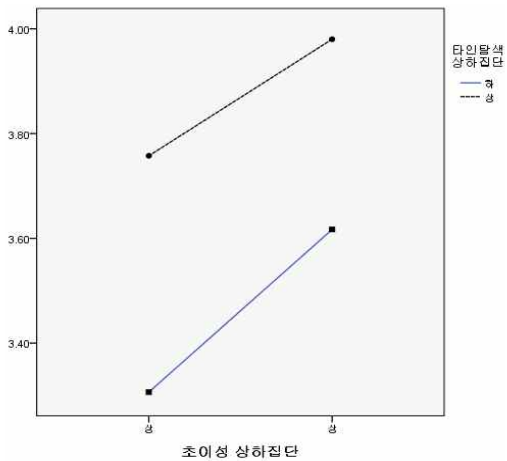


그림 2. 중년기 기혼남성의 초이성과 인지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탐색의 조절효과

과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초이성형이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 모두 타인탐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지적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살펴보면, 비난형은 타인이해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성적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역할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검증에 앞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원점수를 중심화 처리하였다.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성찰을 동시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이러한 상호작용항의 β 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면 자기성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은 의사소통유형, 부부친밀감, 자기성찰의 각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친밀감의 경우 비난형과 타인탐색이 준거변인 변량의 총 8%를 설명하였다($F=15.84, p<.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2%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으며($F=12.70, p<.001$),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였다($\beta=.13, p<.05$). 이러한 결과는 비난형과 인지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탐색이 유의한

표 3.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인지적 친밀감	1단계	비난형	-.14**	.08		15.84***
		타인탐색	.26***			
	2단계	비난형	-.16**	.10	.02	
		타인탐색	-.28***			
			비난형×타인탐색	.13*		
성적 친밀감	1단계	산만형	.20***	.07		13.01***
		자기이해	.16**			
	2단계	산만형	.17**	.08	.01	
		자기이해	.17**			
			산만형×자기이해	.11*		

* $p < .05$, ** $p < .01$, *** $p < .001$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적 친밀감의 경우 산만형과 자기이해는 준거변인 변량의 총 7%를 설명하였다($F=13.01$, $p < .001$).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1%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으며($F=10.17$, $p < .001$), 이때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였다($\beta=.11$, $p < .05$). 이러한 결과는 산만형과 성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이해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유의한 조절효과에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성찰을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선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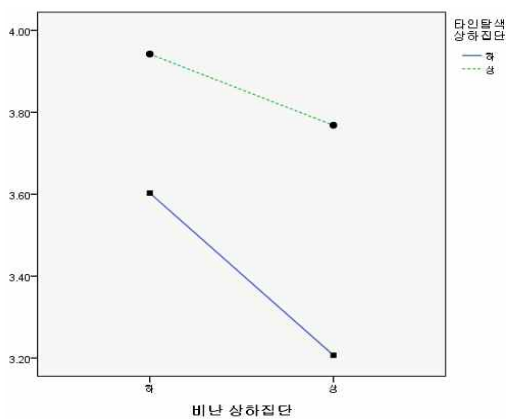


그림 3. 중년기 기혼여성의 비난과 인지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타인탐색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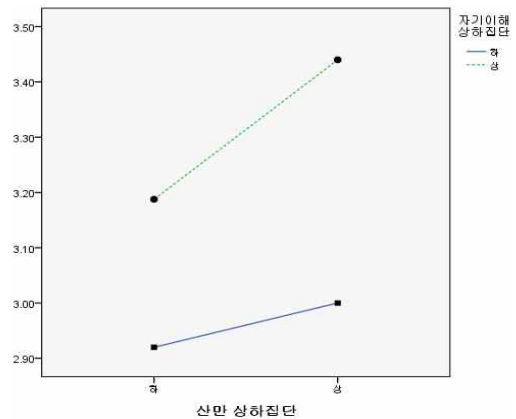


그림 4. 중년기 기혼여성의 산만과 성적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이해의 조절효과

하고 부부친밀감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중년기 기혼여성의 비난 형이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 모두 타인탐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지적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산만형 또한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 모두 자기이해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성적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부부는 가정에 있어 가장 기본 단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관련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가정의 중심이 부부여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격변의 세대를 거치며, 가정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변모하였고, 부부관계에 있어 부부의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족도를 희망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관계가 가정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이혼하지 않고 살기보다는 각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바뀌며 부부친밀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부부친밀감에 대한 중요성은 확실하나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핵심인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 이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의

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성찰의 완충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이성형과 인지적 친밀감 관계에 타인탐색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피력하는 남성에게 상대방의 생각과 기대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상대를 자율적인 존재로 더욱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서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유주희, 1993)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 남성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표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주장한 것과, 박문재(2008)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의 정서적 필요로 채워주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혼 남성은 정서표현의 부족함에 대해 남성의 특징으로 여기므로, 정서적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 기혼 남성들은 비난형과 성적 친밀감에서 타인이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보다 성 만족도가 높고(김요한, 2000), 부부가 서로 성생활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친밀감을 얻게 된다는 이혜진(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년기 기혼남성들이 중년기 가족관계의 변화 및 사회적 관계에서 변화를 맞게 될 때, 타인

탐색과 타인이해를 돕는 자기성찰과정을 통해 부부친밀감을 높여 부부관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즉,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선함으로 부부관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남성에게 있어서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부부친밀감에 영향력이 크며, 타인탐색이나 타인이해를 높여줄수록 부부의 친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결과이다.

둘째, 중년기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난형과 인지적 친밀감 관계에 타인탐색 조절효과, 산만형과 성적 친밀감 관계에서 자기이해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부부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의 비난으로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생각과 느낌을 잘 살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느낌을 전해들은 배우자도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되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대체로 외부의 탓으로 여기는 생각과 판단을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파악함으로 부부친밀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생각, 말, 행동이 부산스러운 산만형 여성의 경우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과 말을 살펴보고 상대방에게 관심과 배려로 다가서는 기술을 훈련한다면 부부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아졌는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이해가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유쾌하고 익살스러

운 행동으로 즐거움을 주어 성적 친밀감을 표현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 경험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자기 이해를 많이 하면 성적 친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아내의 정서적 친밀감을 조절하는 자기성찰의 하위변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자기 개방적인 자기표현이 친밀한 느낌에 대한 유사함과 중요하게 관련되었는데, 남성은 일반적으로 정서를 표현하지 않도록 사회화되어 왔고(Rabinowitz & Cochran, 1994),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도록 사회화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중년기에는 결혼 초기 느꼈던 열정이 친밀감과 헌신이라는 깊은 유대감으로 변한다. 따라서 친밀감과 헌신을 쌓아가는 관계의 특성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로서 부부의사소통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김경신·박은주, 1996; 김미라, 2001; 박민지, 2006; Noller & Fitzpatrick, 1990). 부부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로 인해 부부친밀감이 유지된다면 중년기 기혼 남녀들은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애정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상담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중년기부부 문제의 대부분은 대화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시도하다가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되어 가정폭력으로 사건에 입건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부상담은 의

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부친밀감이 낮아진 중년기 부부들에게 타인 이해 및 타인탐색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부부친밀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을 사용하고 자기성찰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에 따라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은 말하려는 내용과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 일치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친밀감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부부간의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가정체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기성찰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부부관계의 적응과 친밀감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말해준다. 이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자기성찰이 개인의 적응과 안녕감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Hixon & Swann, 1993)와 일치한다. 또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가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황주연, 2011)와도 일치하고 자기성찰은 부부친밀감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부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변수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정적 정서를 가져올 수 있는 자기 이해보다는 부정적 정서가 낮은 타인 이해와 타인탐색이 부부친밀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중년기 자기성찰을

통하여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타인 탐색이나 타인 이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입 전략을 상담과 교육에서 모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기성찰의 수준을 고려하여 상담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가진 기혼 남녀에게 자기성찰을 촉진함으로써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개인상담 보다 집단상담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이정연, 1998)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부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초 작업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상담에 비해 집단상담은 상대방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과 친밀감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 향상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예비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황혼이혼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부친밀감 향상은 임상에서 부부관계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기존 부부 상담이나 개인상담 혹은 집단 상담에서 간과되었던 자기성찰을 통한 타인의 이해가 부부관계에 있어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이론에 근거한 자기성찰을 통해 보다 잠재된 긍정적 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몇 가지 제한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중년기 기혼 남녀들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의 중년기 기혼 남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부의 친밀감의 수준을 양적 측정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부부의 친밀감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지 못했다.

셋째, 설문에 대한 표본의 진실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전히 부부친밀감이란 알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윤가현, 1998) 설문에서 진실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중년기 기혼 남녀의 바람직한 결혼생활의 필수요건인 부부친밀감의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찰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부상담 및 예비부부상담 영역에 유용한 기초연구가 되며,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 내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익혀 부부 의사소통증진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논문집.

김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신, 박은주 (1996). 효과적인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 6, 111-122.

김대광 (2013). 기혼 남녀의 원가족 정서성과 공감능력 및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8(1).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희 (2007).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김미라 (2001). 부부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기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7(2), 199-218.

김영애 (2004). 인간관계 및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 서울: 김영애가족치료 연구소.

김영애 (2011). 통합적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 연구소.

김요한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임영 (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94.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4, [2005]
- 류형택 (2006). 중년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문재 (2008). 부부 친밀감 향상을 위한 가정 사역 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 (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순, 김영희 (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Vol.48 No.9.
- 박주분 (2008). 중년기 남성의 자아정체감과 중년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10). 중년 남성이 지각한 자기의식과 성역할 스트레스가 중년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희 (2012). 기혼 남녀의 내외통제성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태균 (2004). 중년 남성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 교육적 과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pp. 63-85.
- 우명순 (2008).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자아정체감, 부부의사소통,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주희 (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양희 (2010). 중년여성 자아존중감의 변인과 향상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숙 (2006). 중년기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2009).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이에리 (2013).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부친밀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 (2005). 기혼 남녀가 지각하는 부부친밀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이혜진 (2004).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결혼만족도: 내외통제성, 역기능적 태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4(3), 577-590.
- 임재연 (2014).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에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4), 1131-1149.
- 장동규 (2009). 중년기 위기와 응의 개성화 과정.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웅 (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길량 (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정성훈 (2013).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자기성찰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혜 (2013). 자기성찰, 자기효능감, 학업성적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 김명자 (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학회지*, 14(1), 47-64.
- 정순례 (2014).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정혜숙 (2012). 부부의 애착과 부부친밀감 및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황주연 (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5). 2014 이혼 통계 결과.
- Morton, T. L., & Douglas, M. A. (1981). Growth of relationships. In: S. Duck & R. Gilmour(Eds.). *Personal Relationships*, pp3-26, NY: Academic Press.
- Murstein, B. I (1980).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77-792.
- Noller, P. & M. A. Fitzpatrick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Hatfield, E. (1984). The danger of intimacy. In V. J. Derlega(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pp. 207-221. New York: Academic Press.
- Hixon J. G., & Swann, W. B (1993). When does introspection bear fruit self-reflection, self-insight and interpersonal cho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5-43.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mpany.

1차원고접수 : 2015. 10. 23.
심사통과접수 : 2015. 11. 30.
최종원고접수 : 2015. 12. 15.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xamin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Type and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Focusing on comparison of gender**

Ju-Hee Lee

Seon-Hwa Lee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xamin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types and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For this,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was conducted using data of 675 middle-aged men and women. As a result, different aspects were found fro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xamin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type and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Specifically, as for middle-aged men, searching for others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relationships between trans-opposite sex type and cognitive intimacy; and, understanding of others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relationships between blaming type and sexual intimacy. Meantime, as for middle-aged women, searching for others showed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ships between blaming type and cognitive intimacy; and, self-understanding showed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ships between discursive type and sexual intimacy.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type, self-examination, and marital intimac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and then, to have looked into an intervention strategy thereof.

Key words : Middle-aged, Communication Type, Marital Intimacy, Self-examination